

석사학위논문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미 라

2002년 8월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강 미 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강미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강 미 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연구는 남자 고교생들의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이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파악하여 이것이 잠재적 비행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매체 접촉(최초 접촉시기, 접촉빈도)과 잠재적 비행(하위유형: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음란매체 접촉 후의 정서적 영향(느낌, 충동)과 잠재적 비행(하위유형: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의 남자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총 4개교를 선정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음란매체 접촉 실태에 대한 질문지는 김준호, 박해광(1994)의 음란물 접촉 실태 조사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적 비행 청소년 조기 진단 검사는 안창규에 의해 연구, 개발, 표준화 되어 총 2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매체를 어린 시기에 접할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더 높아진다.

특히, 음란매체의 최초 접촉시기가 빠를수록 포르노 비디오와 성인 만화는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지며, 성인 비디오와 성인 주간지는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포르노 잡지접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은 공격형, 억울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포르노 사진첩은 공격형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컴퓨터 음란프로그램은 교우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진다.

둘째, 음란매체 접촉 빈도가 잦을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진다.

특히, 음란매체를 자주 접할수록 성인 비디오와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지며, 성인 주간지는 억울형과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포르노 잡지첩은 교우형과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진다.

셋째, 음란매체 접촉 후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진다. 특히, 교우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음란매체를 접촉 한 후에 기분이 좋은 느낌을 경험 할수록 높아진다.

네째, 음란매체를 접촉 한 후에 따라하고 싶은 모방충동을 경험했을 때가 잠재적 비행성이 높다. 특히, 교우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음란매체 접촉 후에 모방충동을 느꼈을 때에 높다.

즉, 음란매체 접촉 후에 기분이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은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모방충동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영향은 잠재적 비행성을 높게 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자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 경험은 50% 이상이 거의 모든 유형의 음란매체를 접촉 해 본 적이 있으며, 특히 성인 비디오나 포르노 비디오,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80%에 달했다. 이에 청소년들이 음란매체를 통해 왜곡되고 그릇된 성정체감을 형성하기 이전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독특한 문화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음란매체 접촉에 대한 잠재적 비행의 하위 유형별 점수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에 4개의 하위유형의 기준점수를 제시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집단을 나누어 좀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음란매체 접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음란매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과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1. 음란매체의 개념과 유형	5
2. 음란매체의 영향	10
3. 잠재적 비행의 개념과 유형	13
4.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18
III. 연구 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3
3. 자료처리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5
V. 요약, 결론 및 제언	40
1. 요약	40
2. 결론	44
3. 제언	45
참고문헌	46
Abstract	51
부록	54

< 표 목 차 >

<표 III-1> 조사 대상자 현황	22
<표 III-2> 잠재적 비행 유형 분류를 위한 문항구성	24
<표 IV-1> 음란매체 접촉 경험	26
<표 IV-2>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	27
<표 IV-3> 음란매체 접촉 빈도	28
<표 IV-4> 음란매체 접촉 후의 느낌	29
<표 IV-5> 음란매체 접촉 후의 충동	30
<표 IV-6>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와 잠재적 비행	32
<표 IV-7> 음란매체 접촉 빈도와 잠재적 비행	35
<표 IV-8> 음란매체 접촉 후 느낌과 잠재적 비행	37
<표 IV-9> 음란매체 접촉 후 충동과 잠재적 비행	38



[그 립 목 차]

[그림 II-1] 성표현물의 형태	7
[그림 II-2] 성표현물의 구분	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급속하게 이동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이러한 신체적·생리적 발달로 인해서 이성애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동경심이 싹트게 되고 아울러 성충동을 느끼게 되며, 성적인 문제들에 대한 갈등과 고민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자립의 면에서는 아직도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동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신과 신체의 부조화 및 혼란으로 결국 '성적 아노미 현상'에 빠지게 된다(이현규, 1996). 그러나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적인 공상이나 상상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만화나 잡지, 비디오 등을 보며, 근래에 와서는 컴퓨터의 음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음란물을 제공할 수 있는 대중매체로는 만화, 도색잡지, TV나 음란 비디오 등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러한 대중매체 이외에도 컴퓨터가 또다른 음란 전송매체로 대두되어 컴퓨터를 통한 청소년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의 실례로 컴퓨터 통신에서 다운 받은 여자의 누드를 프린트해서 반 친구들에게 돌리다가 선생님에게 들켜 꾸중을 들은 중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PC 통신과 디스켓을 통한 음란 영상물의 유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박아청, 2000). 그 후 최근에 와서는 음란매체를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음란매체를 접한 청소년의 비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 청소년 문화 연구소(1999)가 서울 시내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음란 영상물 접촉 실태 및 영향」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한번 이상 음란 영상물에 접촉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중학교 이전에 처음 음란매체를 접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에 달했다고 한다.

윤진(1995)의 연구에서는 음란매체 중 음란 잡지나 사진물에 한정되었기는 하지만 음란매체를 상습적으로 접촉하는 집단의 경우에 보통 접촉 집단이나 비접촉 집단에 비하여 성경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첫 성경험의 시기도 상습 접촉 집단 중 성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5%가 12세 이전에 성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권준현(1997)은 이러한 음란매체의 접촉은 청소년의 잠재된 음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한다고 그의 연구에서 밝혔다. 또한 교육용 컴퓨터가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나 혹은 성충동과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기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음란매체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성을 쾌락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비행을 비롯한 각종 비행에 노출된다고 최익선, 박혜진(1994)은 보고 하였다.

더욱이 매체의 대체 효과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매체의 등장은 기존의 매체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매체들이 서로 각기 다른 독특한 정보 전달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음란매체 선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권준현, 1997)는 것에 더욱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음란매체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음란매체가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 즉, 그 자체는 범죄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진전 될 가능성

이 있는 행위인 숨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음란매체가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얼마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음란매체 영향력 확대 현상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 고교생들의 음란매체 접촉실태와 이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파악하여 이것이 잠재적 비행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남자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매체 접촉(최초 접촉시기, 접촉 빈도)과 잠재적 비행(하위유형: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음란매체 접촉 후의 정서적 영향(느낌, 충동)은 잠재적 비행(하위유형: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고 제주도로 한정된 점과 남자 고등학생 436명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적 상황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관찰법과 면접법을 이용하지 않고 본 연구의 질문지만을 통해서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음란매체 접촉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7가지의 매체로 제한하여 연구하였고 모든 음란매체를 종합하여 조사하지 못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남자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서 음란매체의 개념과 유형, 음란매체의 영향, 잠재적 비행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음란매체의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음란매체의 개념과 유형

성표현물에 대한 용어는 음란물, 음란매체, 포르노그래피, 노골적인 성표현물, 외설물, 선정매체, 음란퇴폐물 등 일상적인 용어에서 부터 법률 용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란성(obscenity)’은 그리스어인 ‘scena’의 변형어로서 그 의미는 ‘무대를 떠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는 비유적으로 음란하고 저속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김영환, 이경제, 1992).

음란물의 개념은 가치충족을 필요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지니게 되며, 사회와 문화 및 역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서구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성도덕보다는 헌법적인 문제점을 전면에 내세워 음란물의 개념을 세가지 요소 즉, 공공연한 노골성, 호색적인 흥미, 성의 왜곡을 통한 혐오감으로 해석한다. Garry(1983)는 음란물을 단순히 ‘성적으로 노골적이어서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성적 흥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나, Nelson(1982)은 더 나아가 ‘그 내용이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는 이의 환상이 덧붙여지는 것이어야 하며 문학이나 예술에서 음란하거나 음탕한 주제를 표

현하거나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고, 포르노그래피(음란물) 그 자체로서 가학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여성의 가치저하를 표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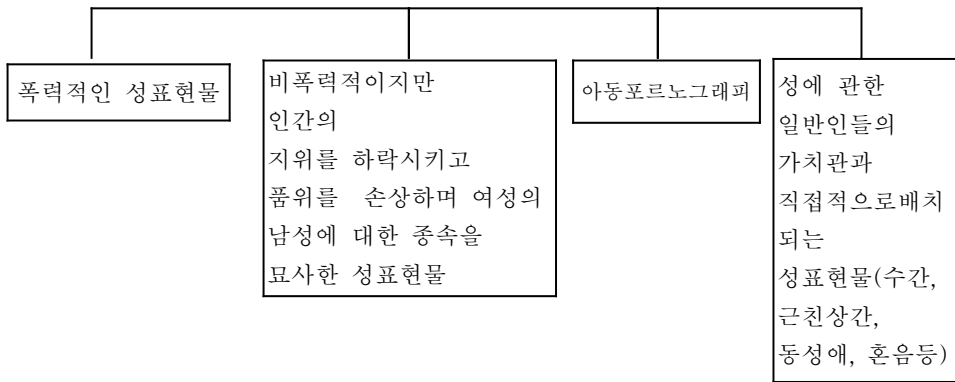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풍속, 성질서 등의 개념을 중시하여 음란물이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재상, 1992). 이러한 개념은 일본에서 1951년 최고 재판소 '선데이 오락사건'에 대한 판결에서의 외설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대부분 판결에서 음란의 기본적 정의가 되고 있다(김준호, 김은경, 1994).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 정의 뿐만 아니라 성표현물(음란물)을 내용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음란물의 모호한 개념을 명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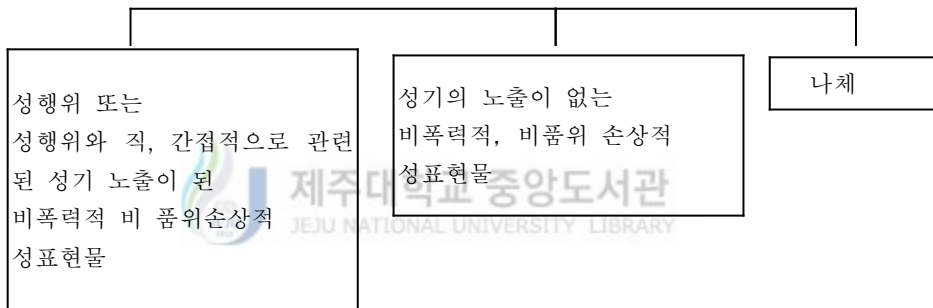
첫째, 1986년에 Donnerstein은 미즈위원회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성표현에 있어서 폭력성(공격성)의 유무에 따라 음란성과 성적 공격성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여 음란물을 모두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Donnerstein, Linz & Denrod, 1987).

둘째, 김영환, 이경재(1992)도 미즈 위원회의 구분에 기초하여서 성표현물들의 형태를 나누는 기준을 '표현의 노골성'과 '반사회성(즉 폭력성)'으로 하여 [그림 II-1]과 같이 나누었다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Hard-core Pornography)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Soft-core Porn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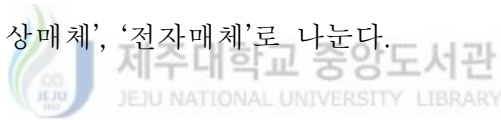


[그림 II-1] 성표현물의 형태 (김영환, 이경재,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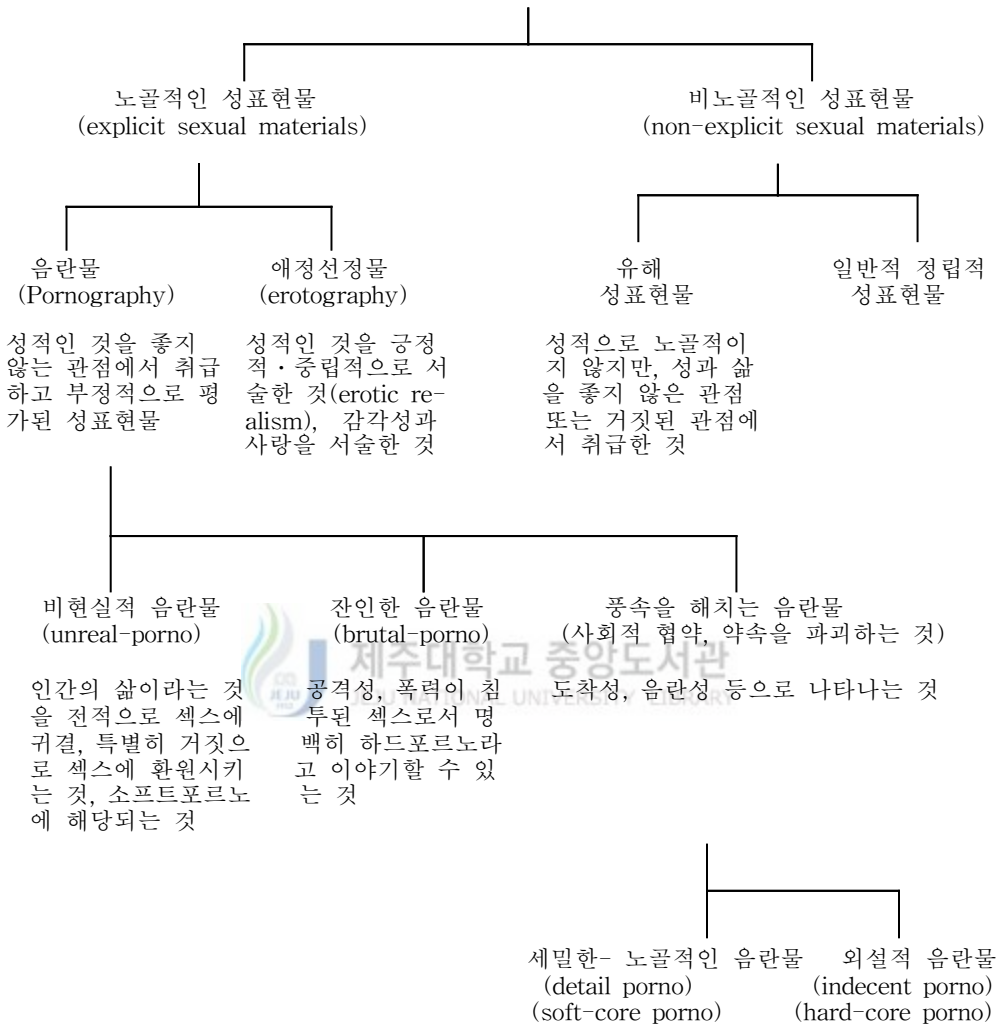
셋째, 김준호, 김은경(1994)은 성표현물의 유해적인 영향의 문제를 중점으로 하여 ‘유해 성표현물’, ‘애정 선정물’ 그리고 ‘일반적 성표현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음란물과 애정선정물(erotica)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데에 문제를 제시하여 애정선정물의 표현 양태와 방법은 분명히 음란물과 다르며, 또한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효과도 음란물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애정선정물 또는 에로티카(erotica, erotography)는 감각적 사랑이나 성적인 것을 다루는 표현물로서 성과

삶을 분리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습과 통합시켜서 묘사하는 것으로 사랑과 함께 성을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음란물은 폭력성, 비인간화, 인격적 품위저하 등의 유해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선정물과는 달리 폭력성과 공격성을 수반한 성표현물이라고 정의 했다. 이와같이 성표현물의 개념을 유해적인 영향에 근거하여 구분한 것을 나타내면 [그림 II-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들을 기초하여 ‘음란매체’란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고 있는 노골적인 성표현물 뿐만 아니라, 비노골적인 성표현물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모든 매체를 음란매체라고 한다. 또한 음란매체의 유형은 책,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인쇄매체’, 라디오, TV, 등의 ‘전자매체’, 전신, 전화, 팩시밀리 등의 ‘전기통신매체’ 그리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정보처리’ 등을 종합하여 ‘인쇄매체’, ‘영상매체’, ‘전자매체’로 나눈다.



성표현물 일반 (sexography)



[그림 II-2] 성표현물의 구분 (김준호, 김은경, 1994)

2. 음란매체의 영향

음란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로 대립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음란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무해론과 이와 반대로 음란매체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유해론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해론, 유해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이론들은 크게 이데올로기적인 논쟁과 심리학적인 이론이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서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적인 관점에서 음란매체의 영향을 평가하며, 심리학적인 이론으로는 정화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인지이론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이론의 관점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정화이론에 의하면 '정화'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1958)의 '시학'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말한 정화(catharsis)란 정서적 이완으로 자극을 발산 하는 것을 말한다. 정화이론에서는 Freud(1940)의 이론인 인간과 동물의 본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개인은 죽음(파괴)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분노와 증오심들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분출 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개인 안에 억압된 증오심과 분노가 더 이상 억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개인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격행위를 통하여 분출하게 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공격적 행동이 방지된다는 것이다(이현규, 1996).

그 후 정화이론은 Lorenz 등에 의해서 보다 체계화 되었다. Lorenz는 인간 내부를 물을 담은 저수조로 가정하였다.

저수조 안에 있는 물은 행위 특정적 에너지(action-specific energy)로서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들은 저수조 안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적되게 되며, 생리적 방출기제(innate releasing mechanism)에 의해 통제되다가 이 방출기제를 외부의 해발 자극(key stimuli)이 잡아 당김으로써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어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행동(fixed action)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저수조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의 해발자극이 아주 강력한 것이어야만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지만, 저수조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해발 자극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방출기제를 작동시켜서 특정행동을 표출시킨다. 또한 외부 자극이 없을지라도 자체의 수압에 의해서 에너지는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기 전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부의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음란매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윤진, 1995, 재인용). 즉, 음란매체는 수용자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거나 성 행위의 대리 참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성 충동을 감소시켜 주며 실제 성적 행위의 유발가능성도 약화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장선화, 1997).

관찰학습이론에서는 정화이론과는 달리 공격장면의 관찰이 개인의 공격심을 순화시키기 보다는 공격장면을 관찰하는 가운데 공격성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찰학습이론은 Bandura와 Huston(1961)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인간은 공격적인 행동을 목격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동을 모방하게 되거나 혹은 더욱 진전된 공격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이론이다(최익선, 박혜진, 1993, 재인용). 또한 이와 같은 모델링은 관찰상황에서 타인의 행동 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재 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경우에도 '타인의 공격행동을 모방하고 있는 아동과 함께 있

을 경우'가 '함께 있지 않은 경우'보다 공격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때 '타인의 존재'는 아동들의 공격행동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학습한 공격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인가(incentive)로 작용하여 공격행동의 표출을 촉진하고, 반대로 공격행동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의 공격행동을 억압하게 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음란매체의 관찰학습도 친구들간에 상호간의 강화효과에 의해서 음란매체를 통해서 본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금지해제가 나타나 아무꺼리낌 없이 관찰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윤진, 1995). 따라서 관찰학습이론에 의하면 음란매체는 수용자의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내재적 성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킴으로써 실생활에서 음란매체에서 관찰한 바와 비슷한 성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장시킨다는 것이다.

정화이론과 관찰학습이론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간을 걸쳐 인간의 폭력적 행동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두되고 있는 사회인지이론은 인간의 폭력성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 이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사회인지이론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폭력을 관찰함으로써 폭력에 관한 정보를 부호화하여 기억 또는 학습하게 되며, 또 관찰된 폭력은 이미 기존에 형성된 공격적인 사고나 지식을 활성화 또는 점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공격행동을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폭력적인 영화의 시청이 강화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방에 의한 공격행동의 단순한 표출로 그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청자의 공격적인 사고나 지식 혹은 인식의 틀을 새롭게 형성하기도 하고, 기존의 공격적인 사고를 활성화 혹은 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관찰된 행동은 그것과 관련된 생각, 정서 등을 활성화시켜 결국 전혀 다른 형태의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전달매체에서 본 사건

그 자체 보다도 그것이 주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개인이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화효과 혹은 사회인지적 관점은 비폭력적인 음란물이나 평범한 누드화 등도 폭력적 음란물이 가지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선정적인 사진 등은 생리적, 정서적 각성을 야기시켜 결국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Zillmann, 1971, 윤진, 1995 재인용).

위의 세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정화이론은 음란매체가 성적욕구를 대리만족시켜 주므로써 현실적으로 유익하다는 음란매체의 무해론을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관찰학습이론에서는 음란매체 접촉을 통해서 관찰한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내재적 성향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며, 이에 더 나아가 사회인지이론은 단순한 모방행동의 표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격적인 사고를 활성화 혹은 점화시켜 전혀 다른 형태의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음란매체의 유해론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음란매체 접촉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유해론 입장을 전제로 한다.

3. 잠재적 비행의 개념과 유형

잠재적 비행(latent delinquency)이란 한마디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비행으로 두가지 의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즉, 비행사건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만 표면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숨은 비행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아직 구체적인 비행 사건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 발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포한다(최신교육학대사전, 1996).

잠재적 비행의 숨은 비행은 실제로 비행이 발생하여도 체포되지 않거나, 경찰당국에서 가벼운 죄로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고 보호자에 의해 인도되는 경우로 비행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표면화 되지 않은 비행을 의미한다. 심영희(1980)는 이와같은 숨은 비행은 공식비행의 양보다 훨씬 크며, 비행의 유형, 심각성, 가시성 및 비행자의 사회적, 개인적 환경 등에 따라 통계의 선택성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 비행에 있어서 학생으로서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을 이탈함으로써 교육적으로 통제를 받게 되는 학생 비행 역시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이 숨은 비행으로 남게 된다. 숨은 비행이 공식적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현저하게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이 풍기사범이나 학교교칙 위반과 같이 법적 제재를 받을 만하지 못한 경미한 비행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비행이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성인 비행에까지 예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Monahan, 1982) 우연적, 충동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만한 심각한 비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잠재적 비행의 또하나의 의미는 전비행으로써 구체적 비행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내면에 비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욕구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정신적 불균형이나 부적응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고민하고 방황하게 된다(Erikson, 1956, Grinder, 1978). 특히 아동기적 문제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청소년기는 유해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자아방어기제가 약화되고 결국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어 부적응 양상을 보이며 더 나아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Negra, 1973).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행이 표면화 될 때 그것이 돌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적

으며 초범의 비행이라 해도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 이전에 있어서 인생내부에 비행의 준비 태세가 형성되어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심리적 이탈, 정서불안정, 불량문화에의 접근, 반사회적 가치에의 동조경향을 볼 수 있음과 더불어 가출, 불량교우등의 문제행위를 보이게 된다. 즉 비행은 순간적인 사건이라기 보다는 비행 청소년이 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잠재적 시기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잠재적 요인들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양점도, 1994). 이와같은 소년들은 비행 예비군이라고 하는데 공갈, 폭행, 강간등의 비행을 범하기 쉽다(최신교육학대사전, 1996). 그렇기 때문에 표은숙(1999)은 비행은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비행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펄스벨러티 붕괴현상 또는 사회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행위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같은 잠재적 비행의 개념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접근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세가지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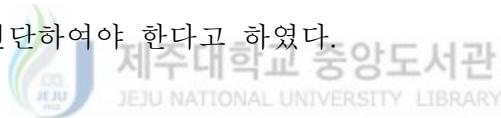
첫번째 접근방법은 법적 준거에 따라 나타난 비행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입장이다. 즉 비행을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비행 교정의 노력은 대체로 공식 절차에 따라 검거 또는 훈계방면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두번째 접근방법은 비행의 원인을 사회구조나 과정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회학적 입장으로, 비행의 개념을 사회적 규범의 일탈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비행을 일으키게 하는 사회구조나 과정을 이해하려고 한다.

세번째 접근방법은 개인 심리학적 접근 방법으로 청소년 비행은 사회적 규범의 일탈로 간주되지만 한 개인의 특성, 동기, 미시적 사회관계에

서의 심리적 변화 및 경험 등 개인의 내적 요인을 강조하여 비행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신의학적 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성격 특성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및 현상학적 이론 등 각 이론들의 입장에 따라 비행을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특히 비행에 관한 이해와 치료를 위한 개인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교육 및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나타난 비행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한 개인의 내적 적응적 과정을 진단하려고 하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비행을 감소 또는 치료하려고 한다. 즉, 비행을 나타내는 원인으로써 그 잠재적 성격 변인을 찾아내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에 안창규는(1990)는 현행 학교의 상담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있어서 비행의 원인이나 그 심리적 발전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교정하기 위해서는 비행이 표면화 되기 이전에 사회심리적 변인을 바탕으로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 내적 심리적 접근에 의한 잠재적 비행 조기진단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행을 나타내는 청소년이 어떤 동기나 행동에 있어서 주로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비행의 원인 파악이나 지도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변별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이는 비행을 그 심리적 하위변인에 따라 비교적 동질적인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비행이 어떤 심리적 또는 역동적 관계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 원인을 알게 되어 그것을 변별적 진단치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chenbach(1966)은 내향적(Internalizing) 및 외향적(Externalizing)인 두 개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Hewitt와 Jenkins(1946)는 과금지적 신경증

된 공격행동(overinhibited neurotic behavior), 사회화된 비행(socialized delinquent) 및 비사회화된 공격행동(unsocialized aggressive behavior) 등의 3개로 분류한다. 또한 Quay(1964a, 1987)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저사회화된 공격성(undersocialized aggression), 사회화된 공격성(socialized aggression), 주의 결핍(attention deficit) 및 불안-위축-불행감(anxiety-withdrawal-dysphoria) 등 4개로 구별한다(안창규, 1990, 재인용).

이에 안창규(1990)는 위의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잠재적 비행유형을 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교우형의 4가지로 분류하여 남녀 각각 다른 특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남학생의 특성 기술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교우형은 불량 교우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비행들을 말하며 끄연, 음주 유흥장 출입, 불량교우와의 결속관계, 불량교우들과의 이성교제 등의 비행을 나타낸다.

둘째, 억울형은 내적 지향적이고 스트레스, 갈등, 성인사회에 대한 현저한 부적응 등으로 자기비하, 열등감, 우울감을 나타내고, 성인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셋째, 공격형은 외면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강하며 acting out하는 형이다. 남학생들의 이 유형은 대체로 절도, 폭력, 강탈등의 비행을 나타내고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넷째, 낙인형은 성인들에 의해 확인되고 낙인 찍힌, 그리고 고질적 비행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법에 걸려본 일이 있고 교사에게 비행아로 확인되었으며 비행의 강도가 다른 세 유형의 비행보다 훨씬 강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 해 보면 잠재적 비행이란 실제로 구체적인 비행사건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 발생의 가능성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비행이 발생하여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비

행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비행의 교정과 치료과정을 위해서 개인 내적 심리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이에 안창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잠재적 비행유형을 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교우형의 4가지로 분류 하였다.

4.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유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이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잠재구인(潛在鉤引)에 의한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음란매체 접촉은 비행을 유발하는 심리적 구인을 자극하여 모든 비행을 증가시키게 된다(Donovan & Jessor, 1985, 윤진, 1995, 재인용).

첫째, 비행을 유발하는 심리적 구인 중의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산업화, 개방화, 국제화로 각종 매체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외국의 각종 표현물들이 유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성표현물 및 성과 관련된 매체가 다양화 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과정은 성개방 풍조에 가속을 더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은 성교육 대신 각종 음란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윤진(1995)은 ‘음란물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 중 특히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천일(1980)은 음란매체 접촉이 주위 환경요인과 준거 집단요인 등과 함께 작용하여 직접적인 행동표출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음란매체 접촉이 청소년의 성의식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성범죄를 급증시킨다.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는 종족의 번식을 목적

으로 할 때만 성행위의 정당성이 공인되었고, 그 밖의 성은 부정한 것, 또는 죄악으로 간주되었는데 이제 현대사회의 정의식은 더 이상의 부부간의 결합, 종족보존의 기능으로 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쾌락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음란·외설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적으로 금지해지된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게 되며 결국에는 성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윤진, 1995).

셋째, 여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청소년들이 성정체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음란매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여성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면서 여성이란 존재를 복종적,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인 인물로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남성 및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성역할 태도는 강간신화와 매우 높은 상관을 가져 강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윤진, 1995, 김은경, 1998).

네째, 사랑관의 변화이다. 사랑은 친밀감, 열정, 결심/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세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데 음란매체를 자주 접하게 되면 사랑을 육체와 열정만을 강조하는 성적 사랑(eros)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열정만을 강조하는 왜곡된 사랑은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며, 혼전성교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성교제의 양상을 변화시켜 결국은 성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윤진, 1995, 김은경, 1998).

다섯째로 음란매체 접촉이 내적인 성충동을 갖게 하여 성비행을 유발할 확률을 높인다는 실증적인 연구도 있다. 김홍철의 ‘청소년 외설매체 노출 정도와 내적 성충동 및 행동간의 분석’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내적인 성충동은 외부의 상황적 제지나 억제가 없을 경우 충분히 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곧 성비행과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성충동이 극히 가변적이어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행동표출을 위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음란매체를 많이 보면 볼수록 성충동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란매체에서 나타난 행동을 관찰 학습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관찰 행동이 아닐지라도 음란매체가 제공하는 정서적·생리적 각성에 따라, 그리고 음란매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김홍철, 1989; 이미경, 1995; 이현규, 1996). 또한 음란매체에 의해 느끼는 성충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경험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며, 더 나아가 성적 사회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McGary, 1973; 유효순, 1985, 재인용).

여섯째, 음란매체의 접촉효과는 접촉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김은경(1998)은 성표현물을 선정적 성표현물과 폭력적 성표현물로 나누어 비행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는 선정적 성표현의 부정적 효과가 더 유의하며, 일반 학생들에게는 폭력적 성표현 접촉이 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이현규(1996)에 의하면 비행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 시청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충동도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 경험은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 시청, 성적 충동의 유발, 모방 성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곱째, 음란매체 접촉은 올바른 성지식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성에 대한 갈등을 증가시켜서 이것이 성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명화, 1998).

마지막으로 김준호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란매체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음란매체의 효과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단순한 음란매체 접촉 뿐만 아니라 음란매체를 접촉 한 후에 느끼는 충동이 비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음란매체 접촉의 효과는 주로 경비행과 성비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1996; 김은경, 1998). 이는 다시 말하면 음란매체 접촉 사실 자체가 비행을 유발한다는 측면 보다는 그것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수용자 태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음란매체 접촉은 청소년들의 성의식 구조나 여성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성갈등을 증가시키고, 잠재된 음란성 충동을 강화하여 모방 성행동을 일으키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비행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 조사로서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절차 및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내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의 남자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총 4개교로 선정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64부를 제외한 436부를 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에서 여학생을 제외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학생이 음란매체를 접하는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여학생의 비행 역시 매우 낮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김준호 외, 1994).

조사대상자를 지역별, 계열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조사 대상자 현황 (%)

구분	지역별				계열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인문계	실업계	
인원	200	146	50	40	235	201	436
(%)	(45.9)	(33.5)	(11.5)	(9.1)	(53.9)	(46.1)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음란매체 접촉실태에 대한 문항과 잠재적 비행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 검사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1) 음란물 접촉 실태 조사 질문지

음란물 접촉실태에 대한 질문지는 김준호, 박해광(1994)의 음란물 접촉 실태 조사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음란물 접촉은 음란물 접촉경험, 최초 접촉시기, 접촉빈도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항선택질문에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 검사

잠재적 비행청소년 조기진단 검사는 잠재적 비행을 변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비행과 관련성이 높은 성격적 변인들을 포함한 자기보고 방법에 의한 측정도구로서 안창규(1990)에 의해 연구, 개발, 표준화되었다. 총 210개 문항으로, 비행준거 척도(D30), 자녀양육 척도(PA), 미성숙 척도(IM), 경조성 척도(MA), 폐쇄성 척도(DI), 대인불안 척도(AN), 적대감 척도(HO), 우울 척도(DA), 신체화 신경증 척도(SO) 및 심적 혼란 척도(CO)등 10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비행 준거 척도(D30)와 상관이 .30이상인 문항 85개를 선정한 후 이를 요인 분석하고 잠재적 비행 유형을 낙인형, 억울형, 공격형 및 교우형으로 분류 해 놓았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의 진위형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적 비행 조기진단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KR20)가 10개의 척도에서 .73~.92로 나타났다.

잠재적 비행의 비행유형별 문항 구성은 아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잠재적 비행 유형 분류를 위한 문항구성

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낙인형	26 ⁽²⁾	5, 22, 23, 29, 34, 39, 43, 52, 86, 103, 112, 116, 130 , 133, 135, 155, 157 , 160, 161, 173, 175, 182, 187, 191, 196, 200
억울형	22	27, 71, 85, 91, 93, 97, 100, 106, 113, 120, 126, 128, 129, 140, 142, 166, 174, 176, 185, 192, 194, 195
공격형	21	21, 24, 35, 37, 59, 64, 72, 83, 87, 94, 101, 108, 127, 132, 144, 158, 163, 171, 178, 180, 188
교우형	18 ⁽²⁾	6, 8, 10, 26, 31, 46, 56, 74, 78, 82, 96, 107, 119, 130 , 139, 157 , 170, 183
계	87 ⁽²⁾	

단, ()속의 숫자는 중복 문항의 수를 나타내며, 짙은 글씨는 중복된 문항번호임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로 얻어진 자료 중 음란매체 접촉과 이에 따른 정서적 영향에 대한 실태 분석은 백분율로 산출 하였으며, 음란매체 접촉과 이에 따른 정서적 영향과 잠재적 비행 점수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들의 음란매체 접촉이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이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알아 보았다. 둘째,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셋째, 정서적 영향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였다.

1. 음란매체 접촉 실태

남자 고등학생들의 음란매체 접촉 실태를 음란매체의 종류별로 알아보기 위해 음란매체의 접촉 경험, 음란매체의 최초 접촉시기, 음란매체의 접촉빈도를 살펴 보았다.

음란매체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인쇄매체, 전자매체, 영상매체로 선정하였다. 인쇄 매체로는 성인용 만화, 성인용 주간지, 포르노 잡지, 포르노 사진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영상매체로는 성인용 비디오와 포르노 비디오를 선정하였으며, 전자매체로는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1) 음란매체 접촉 경험

남자 고등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떤 음란매체를 접촉 해 왔는가를 조사한 결과가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7가지 음란매체를 한번이라도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표 IV-1>

음란매체 접촉 경험

(%)

구 분	성인용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	성인용 만화	포르노 사진	컴퓨터 음란
응답자 (100)	350 (17.6)	318 (16.0)	227 (11.4)	216 (10.9)	269 (13.5)	260 (13.1)	347 (17.5)

단, 응답자의 수는 중복반응을 나타낸 것이며, ()는 각 음란매체별 전체 중복 반응응답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남자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음란매체는 성인용 비디오로서 350명(17.6%)이 대답하였다. 성인용 비디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써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이 347명(17.5%)이었고, 다음으로는 포르노 비디오 318명(16.0%), 성인용 만화 269명(13.5%), 포르노 사진첩 260명(13.1%), 성인 주간지 227명(11.4%), 포르노 잡지 216명(10.9%)이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란매체의 종류별로 살펴 본다면 성인용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와 같은 영상매체와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의 전자매체에 대한 접촉 경험이 성인 주간지, 성인용 만화, 포르노 잡지, 포르노 사진첩등의 인쇄매체에 대한 접촉경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

<표 IV-2>는 남자 고교생들이 처음으로 음란매체를 접촉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를 알아 보았다.

성인용 비디오를 처음 접촉한 시기는 중학교(66.1%) 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22.4%), 고등학교(10.7%), 기타(0.8%)순이었다. 포르노 비디오,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도 모두 위와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2>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

(%)

구 분	성인용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	성인용 만화	포르노 사진	컴퓨터 음란
초	84 (22.4)	81 (24.4)	41 (19.1)	36 (17.4)	39 (13.0)	45 (14.7)	14 (4.0)
중	248 (66.1)	216 (65.1)	139 (64.7)	139 (67.1)	189 (63.0)	204 (66.4)	172 (49.8)
고	40 (10.7)	28 (8.4)	20 (9.3)	19 (9.2)	64 (21.3)	45 (14.7)	151 (43.6)
기타	3 (0.8)	7 (2.1)	15 (6.9)	13 (6.3)	8 (2.7)	13 (4.2)	9 (2.6)
계	375 (100.0)	332 (100.0)	215 (100.0)	207 (100.0)	300 (100.0)	307 (100.0)	346 (100.0)

이와는 달리 성인용 만화는 중학교(63%)때 처음 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21.3%), 초등학교(13%), 기타(2.7%)순으로 나타났다.

포르노 사진은 중학교(66.4%) 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았으며(14.7%), 기타(4.2%)로 나타났다.

컴퓨터 음란프로그램은 중학교(49.8%)때 처음 접한 경우가 많았고, 다음이 고등학교(43.6%), 초등학교(4.0%), 기타(2.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음란매체에 대해 처음 접한 시기를 63%이상이 중학교 때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용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의 경우 초등학교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성인용 만화(23.1%), 포르노 사진(14.7%),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43.6%)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 와서 처음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음란매체 접촉 빈도

<표 IV-3>는 현재 남자 고교생들이 음란매체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표 IV-3> 음란매체 접촉 빈도 (%)

구분	성인용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	성인용 만화	포르노 사진	컴퓨터 음란
한달에 1번	173 (54.1)	131 (42.8)	105 (49.1)	94 (45.0)	138 (48.1)	108 (36.1)	126 (37.0)
한달에 2-3번	39 (12.2)	36 (11.8)	14 (6.5)	18 (8.6)	35 (12.2)	63 (21.1)	70 (20.5)
1주에 1-2번 이상	28 (8.8)	38 (12.4)	11 (5.1)	12 (5.7)	27 (9.4)	49 (16.4)	54 (15.8)
기타	80 (24.9)	101 (33.0)	84 (39.3)	85 (40.7)	87 (30.3)	79 (26.4)	91 (26.7)
합계	320 (100.0)	306 (100.0)	214 (100.0)	209 (100.0)	287 (100.0)	299 (100.0)	341 (100.0)

성인 비디오,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 성인용 만화, 포르노 사진,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한 달에 1번 정도로 접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한 달에 2-3번 본다’, 그 다음으로 ‘1주에 1-2번 이상 본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포르노 비디오는 ‘한 달에 1번 정도로 본다’(42.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33.0%), ‘1주에 1-2번 이상 본다’(12.4%), ‘한 달에 2-3번 본다’(11.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남자 고교생들이 한 달에 1번 정도로 음란매체를 접속한다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가끔 접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포르노 사진이나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한 달에 2-3번 본다’거나 ‘1주에 1-2번 이상 본다’는 학생이 전체의 35%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자주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가 많은 것은 음란매체 접속을 안했거나, 아니면 응답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2. 음란매체 접속 후의 정서적 영향

여기에서는 남자 고교생들이 음란매체 접속 후에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즉, 음란매체 접속 후에는 어떤 느낌을 갖는가, 그리고 어떤 충동을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음란매체 접속 후의 느낌

<표 VI-4>는 남자 고교생들이 음란매체를 접속한 후에 어떠한 느낌을 갖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IV-4> 음란매체 접속후의 느낌 (%)

구 분	빈도 (%)
기분이 좋다	100 (24.2)
불쾌하다	45 (10.9)
별다른 느낌이 없다	262 (63.3)
기타	7 (1.6)
계	414 (100.0)

음란매체를 접촉한 후의 느낌은 대체로 ‘별다른 느낌이 없다’(63.3%)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분이 좋다’(24.2%)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그 다음이다. 이에 비해 ‘불쾌하다’(10.9%)라는 부정적인 반응은 매우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볼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음란매체에 대해 그리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갖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음란매체 접촉 후의 충동

<표 IV-5>는 남자 고교생들이 음란매체를 접촉하고 난 후에 어떤 유형의 충동을 느끼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IV-5> 음란매체 접촉 후의 충동 (%)

구분	빈도(%)
계속 보고 싶어진다	202 (51.8)
따라하고 싶다	89 (22.8)
따라 한 적 있다	31 (7.9)
기타	68 (17.5)
계	390 (100.0)

대부분의 남자 고등학생들은 음란매체를 접촉하고 나면 ‘다시 계속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51.8%)라고 응답했으며,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22.8%), 기타(17.5%), ‘따라 한 적이 있다’(7.9%) 순으로 응답했다. 즉, 계속 보고 싶어지거나 따라하고 싶은 단순한 충동을 느낀 경우는 74.6%이며, 특히 음란매체 접촉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경우로 따라한 적이 있는 학생은 7.9%로 나타났다.

3.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지금까지 남자 고교생들의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이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음란매체 접촉이 남자 고교생의 잠재적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와 빈도에 따라서 이들의 잠재적 비행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와 잠재적 비행

<표 IV-6>는 음란매체를 처음 접촉한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이들의 잠재적 비행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성인 비디오의 경우 공격형 잠재적 비행 점수는 최초 접촉시기별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4.23$). 즉, 초등학교 때 성인 비디오를 처음 접촉했을 때 공격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bar{X}=7.39$), 다음으로 중학교 때($\bar{X}=6.54$), 고등학교 때($\bar{X}=5.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르노 비디오의 경우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최초 접촉 시기별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4.71$, $F=3.93$, $F=3.15$, $F=5.90$), 초등학교 때부터 포르노 비디오를 접촉했을 경우에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6>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와 잠재적 비행

구분	교우형				익울형				공격형				낙인형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성인용 비디오	초	83	4.30	3.69	1.19	83	6.65	3.93	2.04	83	7.39	4.07	4.23*	83	6.61	3.95	2.63
	중	247	3.94	3.68		241	6.15	4.21		246	6.54	3.81		246	5.91	3.93	
	고	40	3.22	3.00		40	5.07	3.13		40	5.27	3.28		40	4.90	3.68	
	계	370	3.94	3.62		364	6.14	4.05		369	6.59	3.85		369	5.96	3.93	
포르노 비디오	초	81	5.00	4.37	4.71*	79	7.22	4.28	3.93*	81	7.20	4.34	3.15*	81	6.61	4.22	5.90*
	중	213	3.81	3.56		210	5.80	4.27		212	6.39	3.89		212	5.89	4.05	
	고	28	2.82	3.18		28	5.25	3.44		28	5.10	2.62		28	3.60	2.68	
	계	322	4.03	3.80		317	6.10	4.25		321	6.48	3.95		321	5.87	4.05	
성인 주간지	초	41	5.46	4.43	1.35	41	7.34	4.21	0.87	41	8.53	4.55	3.21*	41	7.46	4.14	2.19
	중	137	4.68	4.12		134	6.31	4.29		136	6.63	4.04		137	6.35	4.20	
	고	20	3.65	3.13		20	6.35	5.35		20	7.30	4.81		20	5.15	4.19	
	계	198	4.74	4.11		195	6.53	4.39		197	7.09	4.27		198	6.46	4.21	
포르노 잡지칩	초	36	6.16	4.01	2.61	35	8.57	4.16	4.19*	36	9.19	4.41	4.77**	36	8.11	3.67	6.02**
	중	137	4.76	4.30		134	6.20	4.37		136	6.95	4.03		136	6.82	4.10	
	고	19	3.63	3.21		18	6.27	4.48		19	6.31	4.37		19	4.21	3.34	
	계	192	4.91	4.19		187	6.65	4.42		191	7.31	4.22		191	6.80	4.06	
포르노 사진칩	초	39	5.15	4.17	1.90	39	7.64	4.14	2.87	39	8.23	4.59	3.85*	39	7.12	3.72	4.27*
	중	185	4.06	3.96		182	5.84	4.16		184	6.52	3.94		185	6.05	4.33	
	고	64	3.62	3.51		62	6.29	4.58		64	6.00	4.04		64	4.76	3.72	
	계	288	4.11	3.91		283	6.19	4.28		287	6.64	4.10		288	5.91	4.17	
성인용 만화	초	44	5.45	3.79	6.35**	44	8.13	3.90	5.75**	44	8.59	4.17	6.89**	44	7.29	3.96	5.70**
	중	202	4.09	3.88		199	5.82	4.08		201	6.37	3.83		201	6.04	4.10	
	고	45	2.57	3.48		45	5.77	4.76		45	5.80	4.10		45	4.42	3.81	
	계	291	4.06	3.88		288	6.17	4.23		290	6.62	4.00		290	5.98	4.10	
컴퓨터 음란프로그램	초	13	3.69	2.28	3.10*	13	7.07	3.61	3.01	13	7.30	3.01	3.00	13	6.61	2.95	6.02**
	중	170	4.21	4.25		170	6.39	4.48		169	6.85	4.38		170	6.30	4.45	
	고	151	3.15	3.27		147	5.31	3.99		151	5.79	3.85		150	4.75	3.81	
	계	334	3.71	3.80		330	5.94	4.26		333	6.39	4.13		333	5.61	4.19	

* p<.05, ** p<.01

성인 주간지인 경우 공격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최초 접촉시기별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F=3.21$), 초등학교 때 성인주간지를 처음 접촉했을 때가 공격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ar{X}=8.53$), 다음으로 고등학교 ($\bar{X}=7.30$), 중학교 ($\bar{X}=6.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르노 잡지첩은 억울형 잠재적 비행에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4.19$), 초등학교 때 포르노 잡지첩을 처음 접촉 했을 때 억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bar{X}=8.57$), 다음으로 고등학교 때 ($\bar{X}=6.27$), 중학교 때 ($\bar{X}=6.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격형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은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4.77$, $F=6.02$), 초등학교 때부터 포르노 잡지첩을 접촉 해 왔을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르노 사진첩에서는 공격형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최초 접촉시기별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3.85$, $F=4.27$), 초등학교 때 포르노 사진첩을 처음 접촉 했을 때에 공격형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용 만화의 경우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최초 접촉시기별로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F=6.35$, $F=5.75$, $F=6.89$, $F=5.70$), 초등학교 때 성인용 만화를 처음 접촉 했을 때가 공격형, 억울형, 낙인형,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의 경우 교우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최초 접촉

시기별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F=3.10$),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접촉 해 온 경우에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bar{X}=4.21$), 다음으로 초등학교 때($\bar{X}=3.69$), 고등학교 때($\bar{X}=3.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는 최초 접촉 시기별로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F=6.02$), 초등학교 때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가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bar{X}=6.61$), 중학교 때($\bar{X}=6.30$), 고등학교 때($\bar{X}=4.7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음란매체들이 최초 접촉 시기별로 잠재적 비행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음란매체를 조기에 접촉할수록 잠재적 비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란매체를 어린 시기부터 접촉하여 접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짐을 시사 해 주고 있다.

(2) 음란매체 접촉 빈도와 잠재적 비행

<표 IV-7>는 음란매체를 얼마나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 잠재적 비행점수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성인 비디오의 경우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접촉 빈도에 따라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3.09$), 성인 비디오를 ‘1주에 1-2번 이상’ 접했을 때가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bar{X}=5.89$), 다음으로 ‘한 달에 2-3번’ 접촉했을 때($\bar{X}=4.25$), ‘한 달에 1번 정도’ 접촉했을 때($\bar{X}=4.01$)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7> 음란매체 접촉 빈도와 잠재적 비행

구분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성인용 비디오	한달 1번 정도	171	4.01	3.65	3.09*	166	5.87	3.90	2.10	171	6.71	3.70	0.19	171	6.15	4.05	1.75
	한달에 2-3번	39	4.25	3.36		39	6.51	4.66		39	6.79	3.60		39	6.25	4.33	
	1주에 1-2번 이상	28	5.89	4.32		28	7.57	4.96		27	7.22	5.36		28	7.71	3.97	
	계	238	4.27	3.72		233	6.18	4.19		237	6.78	3.89		238	6.35	4.10	
포르노 비디오	한달 1번 정도	130	4.02	3.96	1.89	128	5.83	4.16	1.84	130	6.65	3.67	1.20	130	6.27	4.02	0.20
	한달에 2-3번	35	4.40	3.51		35	6.74	5.10		35	6.77	4.58		35	6.40	4.57	
	1주에 1-2번 이상	38	5.39	3.62		37	7.27	4.03		37	7.81	4.62		38	6.76	3.92	
	계	203	4.34	3.84		200	6.26	4.33		202	6.88	4.03		203	6.38	4.09	
성인 주간지	한달 1번 정도	103	4.53	4.53	2.61	101	6.19	6.19	3.82*	103	7.16	7.16	3.67*	103	6.65	6.65	1.41
	한달에 2-3번	14	6.21	6.21		14	8.00	8.00		14	9.50	9.50		14	8.29	8.29	
	1주에 1-2번 이상	11	6.64	6.64		11	9.45	9.45		10	9.60	9.60		11	8.09	8.09	
	계	128	4.90	4.90		126	6.67	6.67		127	7.61	7.61		128	6.95	6.95	
포르노 잡지첩	한달 1번 정도	93	4.08	3.68	3.40*	91	5.68	4.01	4.18*	93	6.83	3.82	2.41	93	6.27	4.20	1.66
	한달에 2-3번	17	6.12	4.01		17	7.76	5.67		17	8.65	4.54		17	7.76	4.21	
	1주에 1-2번 이상	12	6.17	3.59		12	8.92	4.14		11	8.82	4.62		12	8.00	3.36	
	계	122	4.57	3.79		120	6.30	4.40		121	7.26	4.04		122	6.65	4.15	
포르노 사진첩	한달 1번 정도	136	4.13	3.62	1.35	133	6.11	3.84	1.42	136	6.94	3.68	2.04	136	6.07	4.27	0.48
	한달에 2-3번	35	4.03	3.69		34	5.56	5.26		35	5.83	4.57		35	5.51	4.49	
	1주에 1-2번 이상	27	5.33	3.56		26	7.35	4.13		26	7.85	4.34		27	6.56	3.49	
	계	198	4.27	3.63		193	6.18	4.17		197	6.86	3.96		198	6.04	4.20	
성인용 만화	한달 1번 정도	106	4.15	4.09	0.62	104	5.92	4.18	1.70	106	6.63	3.93	0.97	106	6.42	4.48	0.08
	한달에 2-3번	63	4.29	3.34		62	7.02	4.39		63	7.33	3.90		63	6.19	3.87	
	1주에 1-2번 이상	49	4.86	3.27		48	6.94	4.02		48	7.42	3.87		49	6.45	3.22	
	계	218	4.35	3.70		214	6.47	4.22		217	7.01	3.91		218	6.36	4.04	
컴퓨터 음란프로그램	한달 1번 정도	124	3.48	3.56	3.83*	123	5.63	4.01	0.03	124	6.49	3.97	0.25	124	5.60	4.36	1.49
	한달에 2-3번	70	3.14	3.28		69	5.75	4.23		70	6.34	4.04		70	4.86	4.13	
	1주에 1-2번 이상	54	4.87	4.23		53	5.75	4.38		53	6.02	4.32		54	6.17	4.22	
	계	248	3.69	3.68		245	5.69	4.14		247	6.35	4.05		248	5.51	4.27	

*p<.05

성인 주간지인 경우에는 억울형, 공격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접촉 빈도에 따라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F=3.82, F=3.67), 성인 주간지를 ‘1주에 1-2번 이상’ 접했을 때가

억울형, 공격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포르노 잡지첩은 교우형과 억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접촉 빈도에 따라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3.40$, $F=4.18$), 포르노 잡지첩을 '1주에 1-2번 이상' 접했을 때가 교우형, 억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접촉빈도에 따라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F=3.83$),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을 '1주에 1-2번 이상' 접했을 때가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bar{X}=4.87$), 다음으로 '한 달에 1번 정도' 접했을 때($\bar{X}=3.48$), '한 달에 2-3번' 접했을 때($\bar{X}=3.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음란매체들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비행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란매체를 자주 접하게 되면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음란매체 접촉 후 정서적 영향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남자 고교생들이 음란매체를 접촉하므로써 경험하는 정서적 영향과 잠재적 비행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음란매체 접촉 후의 느낌에 따라 잠재적 비행성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또한 충동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검토 해 보고자 한다.

(1) 음란매체 접촉 후 느낌과 잠재적 비행

<표 IV-8>는 남자 고교생이 음란매체를 접촉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적 비행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표 IV-8> 음란매체 접촉 후 느낌과 잠재적 비행

구분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기분이 좋다	99	4.51	3.68	5.64**	97	6.39	4.00	1.31	98	6.58	4.19	1.47	99	6.15	4.10	5.59**
불쾌하다	45	2.38	4.23		45	5.22	4.44		45	5.38	4.12		45	3.76	3.92	
별다른 느낌이 안 든다	259	3.57	3.46		254	5.87	4.08		259	6.22	3.75		258	5.53	3.98	
계	403	3.67	3.65		396	5.92	4.11		402	6.21	3.91		402	5.49	4.05	

** p<.01

음란매체 접촉 후에 느끼게 되는 느낌에 따라 잠재적 비행 점수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 본 결과 교우형 잠재적 비행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음란매체 접촉 후의 느낌에 따라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5.64, F=5.59). 즉, 음란매체 접촉 후에 기분이 좋은 경우에는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bar{X} =4.51), 그 다음으로는 ‘별다른 느낌이 안 든다’(\bar{X} =3.57), ‘불쾌하다’(\bar{X} =2.38)의 순으로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F=5.64). 또한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도 음란매체 접촉 후에 기분이 좋았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bar{X} =6.15), 그 다음으로는 ‘별다른 느낌이 안 든다’(\bar{X} =5.53), ‘불쾌하다’(\bar{X} =3.76) 순으로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F=5.59).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음란매체를 접촉하고 난 후에 좋은 느낌을 가질수록 잠재적 비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별다른 느낌이 안든다’, ‘불쾌하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란매체 접촉 후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음란매체 접촉 후 충동과 잠재적 비행

<표 IV-9>는 음란매체를 접촉 한 후에 어떤 충동을 느끼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적 비행 점수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표 IV-9> 음란매체 접촉 후 충동과 잠재적 비행

구분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N	\bar{X}	SD	F
계속 보고 싶어진다	200	3.48	3.46	4.52*	197	5.82	4.03	2.60	199	6.06	3.74	5.49**	199	5.18	3.74	5.71**
따라하고 싶다	88	4.83	4.09		86	7.01	4.17		88	7.70	4.38		88	6.74	4.25	
따라 한 적 있다	31	4.45	3.59		30	6.40	3.87		31	6.42	3.22		31	6.65	4.03	
계	319	3.94	3.70		313	6.20	4.08		318	6.55	3.94		318	5.75	3.98	

* p<.05, ** p<.01

음란매체를 접촉하고 난 후에 음란매체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때가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bar{X} =4.83), ‘따라한 적이 있다’(\bar{X} =4.45), ‘계속 보고 싶어진다’(\bar{X} =3.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에 따른 잠재적 비행이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52).

또한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도 위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격형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은 충동에 따라 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49$, $F=5.71$).

전체적으로 음란매체를 접촉하고 나서 실제로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경우(따라 한 적이 있다) 보다도 따라하고 싶은 모방 충동을 느꼈을 때가 더 잠재적 비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비행의 개념을 미루어 볼 때 김준호, 박해광(1994)의 ‘충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따라하고 싶다’는 충동이 경비행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며, ‘따라한 적이 있다’는 충동적 행위 변인은 범죄적 성격을 갖는 중비행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남자 고교생들의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이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파악하여 이것이 잠재적 비행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 음란매체의 개념과 유형, 음란매체의 영향, 잠재적 비행의 개념과 유형,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음란매체 접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음란매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과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음란매체 접촉(최초 접촉시기, 접촉 빈도)과 잠재적 비행(하위유형: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음란매체 접촉 후의 정서적 영향(느낌, 충동)과 잠재적 비행(하위유형: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외의 남자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총 4개교를 선정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

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64부를 제외한 436부를 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음란매체 접촉 실태에 대한 문항과 잠재적 비행성을 측정하기 위해 잠재적 비행 청소년 조기 진단 검사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음란매체 접촉 실태에 대한 질문지는 김준호, 박해광(1994)의 음란물 접촉 실태 조사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음란매체 접촉 경험, 최초 접촉시기, 접촉빈도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적 비행 청소년 조기 진단 검사는 잠재적 비행을 변별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비행과 관련성이 높은 성격적 변인들을 포함한 자기보고 방법에 의한 측정도구로써 안창규에 의해 연구, 개발, 표준화 되어 총 2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KR20)가 10개의 척도에서 .73~.92이다.

자료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른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고교생들의 음란매체 접촉 실태를 알아 본 결과 음란매체 접촉 경험에서는 성인 비디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 포르노 비디오, 성인용 만화, 포르노 사진첩,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 순으로 나타나 영상매체와 전자매체에 대한 접촉 경험이 인쇄매체에 대한 접촉 경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매체를 처음 접촉한 시기는 컴퓨터 음란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음란매체에 대해 63%이상이 중학교 때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 비디오, 포르노 비디오, 성인 주간지, 포르노 잡지의 경우에는 초등

학교 때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인용 만화(21.3%), 포르노 사진(14.7%),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43.6%)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매체 접촉 빈도는 대부분의 남자 고교생들이 한달에 1번 정도로 비교적 가끔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르노 사진첩이나 컴퓨터 음란프로그램은 ‘한 달에 2-3번 본다’거나, ‘1주에 1-2번 이상 본다’는 학생이 전체의 35%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자 고교생들이 음란매체 접촉 후에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 본 결과 음란매체 접촉 후의 느낌은 ‘별다른 느낌이 없다’(63.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분이 좋다’(24.2%), ‘불쾌하다’(10.9%)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음란매체에 대해 그리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음란매체 접촉 후 경험하는 충동은 51.8%가 ‘다시 계속 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따라하고 싶다’(22.8%), 기타(17.5%), ‘따라한 적이 있다’(7.9%)순으로 나타났다. 즉, 계속 보고 싶거나, 따라하고 싶다는 단순한 충동을 느낀 경우가 74.6%이고, 특히 음란매체 접촉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경우로 따라한 적이 있는 학생이 7.9%로 나타났다.

셋째, 음란매체 접촉과 잠재적 비행성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음란매체 최초 접촉시기와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에서는 최초 접촉시기에 따라 잠재적 비행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음란매체를 조기에 접할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졌다. 성인 비디오는 최초 접촉시기에 따라 공격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23$), 포르노 비디오는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최초 접촉시기별로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71, F=3.93, F=3.15, F=5.90). 성인 주간지는 공격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5$, F=3.21), 포르노 잡지첩은 억울형($p < .05$, F=4.19), 공격형($p < .01$, F=4.77), 낙인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p < .01$, F=6.02) 최초 접촉시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포르노 사 진첩은 공격형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F=3.85, F=4.27), 성인용 만화는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6.35, F=5.75, F=6.89, F=5.70),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교우형($p < .05$, F=3.10)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p < .01$, F=6.02) 최초 접촉시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란매체 접촉 빈도에 따른 잠재적 비행점수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음란매체들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비행점수가 높게 나타나 음란매체를 자주 접하게 되면 잠재적 비행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 비디오의 경우 접촉 빈도에 따라 교우형 잠재적 비행 점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09), 성인 주간지는 억울형과 공격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접촉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82, F=3.67), 포르노 잡지첩은 교우형과 억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40, F=4.18),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교우형 잠재적 비행점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83).

네째, 음란매체 접촉 후의 정서적 영향과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음란매체 접촉 후에 어떤 느낌을 갖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적 비행점수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음란매체 접촉 후에 느끼는 느낌에 따라

교우형 잠재적 비행($p<.01$, $F=5.64$)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점수가($p<.01$, $F=5.59$)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음란매체 접촉 후에 좋은 느낌을 가질수록 잠재적 비행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음란매체 접촉 후에 어떤 충동을 느끼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적비행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음란매체 접촉 후에 경험하는 충동의 유형에 따라 교우형($p<.05$, $F=4.52$), 공격형($p<.01$, $F=5.49$), 낙인형($p<.01$, $F=5.71$) 잠재적 비행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음란매체를 접촉하고 난 후에 따라하고 싶은 모방충동을 느꼈을 때가 잠재적 비행성이 높게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해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매체를 어린 시기에 접할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더 높아진다. 특히, 음란매체의 최초 접촉시기가 빠를수록 포르노 비디오와 성인 만화는 교우형, 억울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지며, 성인 비디오와 성인 주간지는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포르노 잡지첩은 공격형, 억울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포르노 사진첩은 공격형과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컴퓨터 음란프로그램은 교우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진다.

둘째, 음란매체 접촉 빈도가 잦을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진다. 특히, 음란매체를 자주 접할수록 성인 비디오와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교우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지며, 성인 주간지는 억울형과 공격형 잠재적 비행이, 포르노 잡지첩은 교우형과 억울형 잠재적 비행이 높아진다.

셋째, 음란매체 접촉 후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수록 잠재적 비행성이

높아진다. 특히, 교우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음란매체를 접촉 한 후에 기분이 좋은 느낌을 경험 할수록 높아진다.

네째, 음란매체를 접촉 한 후에 따라하고 싶은 모방충동을 경험했을 때가 잠재적 비행성이 높다. 특히, 교우형, 공격형, 낙인형 잠재적 비행이 음란매체 접촉 후에 모방충동을 느꼈을 때에 높아진다.

즉, 음란매체 접촉 후에 기분이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은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모방충동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영향은 잠재적 비행성을 높게 한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자 고교생의 음란매체 접촉 경험은 50%이상이 거의 모든 유형의 음란매체를 접촉 해 본 적이 있으며, 특히 성인 비디오나 포르노 비디오, 컴퓨터 음란 프로그램은 80%에 달했다. 이에 청소년들이 음란매체를 통해 왜곡되고 그릇된 성정체감을 형성하기 이전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독특한 문화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음란매체 접촉에 대한 잠재적 비행의 하위 유형별 점수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에 4개의 하위유형의 기준점수를 제시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집단을 나누어 좀더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광우(2000). MBTI 성장프로그램이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속경(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경향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행자(1999). 고교생의 성적인 매체유형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준현(1997). 정보화 사회에서 유해매체의 접촉 양태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1992). 청소년 음주와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미숙(1998). 여자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1992). 청소년 성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이경재(1992).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1998).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1996). 음란물과 비행,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준호, 김은경(1994). 음란물의 유행성과 그 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박해광(1994).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홍철(1989). 외설매체가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혜옥(1987). 청소년의 성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말순(1983).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2000). 사춘기의 이해, 교육과학사.
- 박은주(1993).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일(1986). 청소년 일탈행위에 미치는 대중매체 효과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86).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문제에 전달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광원(1990). 대중매체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1981). 한국의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 안창규(1985). 청소년 비행의 이론적 연구모형,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0). 잠재적 비행 청소년의 조기 진단 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 양점도(1994). 청소년 잠재적 비행 예측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금란(1999).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잠재비행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95). 음란 출판물이 청소년의 성행동 및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행물 유통위원회.
- 유효순(1985).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적 사회화에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정(1995). 고등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의 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우(1997). 현대 대중매체와 고등학생과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선(1987). 청소년기의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1993). 청년심리학, 중앙서적.
- 이현규(1996). 영상매체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실태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민택(1997). 남,녀 고교생의 성인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화(1997). 음란물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학지사.
- 전수웅(1995). 보호관찰 및 일반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잠재적 비행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최익선, 박혜진(1994).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한국 청소년문화 연구소.
- 한국청소년 개발원(1999). 청소년 문제 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_____ .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 한상철(1997). 청소년 심리학, 양서원.
- A.Negra(1973). Adolescence, Some Diagnostie, Pornostican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S.C. Fein Stein and P. S.
 Giovachin (eds.), *In Adolescent Psychiatry, Vol. 2*, New York:
 Basic Books.
- Donnerstein, E., Linz D. & Penrod S. (1987). The Qestion of
 Pornography :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N. Y.
 : The Free Press.
- Garry, Ann(1983). “Pornography and Respect for Women” in Copp &
 Wendelled.
- Jenkins, R. L.(1973).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Springfield, III. : Thomas.
- Jesness, C. F.(1971). *The Jesness Behavior Checklist*.
 Pal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_____ (1972). *The Jesness Inventory*. Pal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Lederer, L.(1980). *Take Back the Night : Woman on Pornography*,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 Monahan, J.(1982).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 criminal behavior. In
 F. N. Dutile, C. H. Foust & D. R. Webster(ed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Lexington,
 Massachusetts : D. C. Health & Co.

- Nelson, Edward C.(1982).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 M. Yaffe & E. C.
- Nelson ed.,(1982). The Influence of Pornography on Behavior, Academic Press.
- Quay, H. C.(1987).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ed.). N. Y. : John Wiley & Sons.
- R. E. Grinder(1978). *Adolescence*, 2n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 Russell, Diana E. H.(1980). “Pornography and Violence : What Does the New Research Say?” , in L. Lederer eds.
- Sapolsky,B. S.(1984). ‘Arousal, affect and the aggression-moderating effect of erotica’ , in Malamuth, N. M. & Donnerstein, E. (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Orando, FL : Academic Press.
- Schill, T. & Chapin, J.(1972). ‘Sex-guilt and males’ preference for reading erotic magazin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Abstract

Relations between obscene media exposure and Latant delinquency of high school

Kang Mira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is research intends to grasp the realities of obscene media exposure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emotional influence, and find what relations this establishes in connection with latent delinquency facets.

The research questions to achieve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relations exist between obscene media exposure(first exposure time, exposure frequency) and latent delinquency(sub-type: labeling type, depressive type, aggressive type, socialized type)?

Secondly, what relations are established from emotional influence(feeling, drive) after obscene media exposure and latent delinquency(sub-type: labeling type, depressive type, aggressive type, socialized type)?

A total of 4 schools were selected out of boys' lib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located in Jejudo by region(Jeju city, Seogwipo city, North Jeju county, South Jeju county)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00 students in order to resolve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The questionnaire on the realities of obscene media exposure used for the research was revis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and complemented from the survey method on the realities of obscene materials exposure made by Kim Junho, Park Haegwang(1994), and comprises a total of 5 items. The Early Diagnosis Test on latent Delinquent Juvenile, was studied, developed, and standardized by An Changgyu and consists of a total of 210 items.

The data process was analyzed synthetically through the SPSS program.

The conclusion from synthesizing the resulting research outcomes is as follows.

First, the earlier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are exposed to obscene media the higher latent delinquency inclination becomes.

In particular the earlier the first exposure time of obscene media is the higher labeling type, depressive type, aggressive type, and socialized type latent delinquency become in case of pornographic video film and adult cartoon, aggressive type latent delinquency rises up in adult video and adult weekly magazine, aggressive type, socialized type, and depressive type latent delinquency in connection with pornographic magazine, aggressive and socialized type latent delinquency by means of pornographic photograph album, and labeling type and socialized type latent delinquency increases regarding computerized obscene programs.

Secondly, the more often the students are exposed to obscene media the higher latent delinquency inclination runs.

Especially the more often the students see obscene media the higher labeling type latent delinquency runs in case of adult video and computerized obscene programs, depressive type and aggressive type latent delinquency shoots up with regard to adult magazines, and labeling type and depressive type latent delinquency with pornographic magazines.

Third, the more positive feeling the students have after obscene media exposure the higher latent delinquency inclination gets. Particularly labeling type and socialized type latent delinquency edges up the more delightful feeling the students have after obscene media exposure.

Fourth, when the surveyed students experienced an imitation drive to want to follow after obscene media exposure, latent delinquency inclination climbs. Especially labeling type, aggressive type, and socialized type latent delinquency rise when they felt an imitation drive after exposed to obscene media.

In other words if the boy students have a delightful feeling after exposed to obscene media this positive feeling leads to an imitation drive to want to follow the obscene media show and this kind of emotional influence makes latent delinquency inclination increase.

If a few suggest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above the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obscene media exposure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more than 50% out of

them have experienced seeing almost all types of obscene media while in particular 80% have seen adult video and pornographic video, and obscene computer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ref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sex education is required before juveniles establish distorted and wrong identity of sex through obscene media.

Secondly, differentiated spaces for good use of spare time and unique culture of juveniles are needed to prepare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all kinds of harmful media and prevent all kinds of delinquency.

Third, the research compared and analyzed the scores by sub-type of latent delinquency with obscene media exposure. Besides the standard scores of 4 sub-types should be presented, the group be divided by sub-type, and then more verified and multi-dimensional searches are required to be performed.

This research provides educational suggestions to use the data on obscene media exposure of juveniles presented above as basic materials for systematic school sex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bscene media exposure and at the same time fostering the youth soundly by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in advance.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음란물이 여러분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강 미라

*설문지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음란매체의 종류>

- 비디오**
- ①성인용 비디오- 공윤 심의를 마친 영화이지만 그 내용이 노골적인 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예)애마부인, 노랑머리등
 - ②포르노 비디오-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노골적인 성행위만을 다루는 영화
- 잡지**
- ①성인 주간지-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기사를 담고 있는 국내 주간잡지
(예)실화와 사건, 건강 다이제스트등
 - ②포르노 잡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노골적인 성을 주제로 한 외국 잡지
(예)play boy, pent house 등
- 그림**
- ①성인용 만화- 성인용 일본 번역 만화나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포르노 만화
 - ②포르노 사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는 사진집
- 컴퓨터(음란 사이트, 음란 CD)-** 성행위나 나체를 묘사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사이트

5.당신은 음란물을 보고 난 후 어떤 **충동**을 느꼈나요? V표시 하거나 기타란에 쓰시오.

①계속 보고 싶어진다.

②따라하고 싶다.

③따라 한 적 있다.

기타 ()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응 답 요 령

(예) 26.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예” 이면-----○

“아니오” 이면-----×

1.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가정생활도 즐겁다.()
2. 나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다.()
3.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
4. 항상 따뜻한 가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5. 공중전화기나 자판기등을 부순 적이 있다.()
6. 방과 후 외출 때에 어른처럼 꾸미고 나간 적이 있다.()
7. 남 몰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8. 나는 술을 가끔 마신다.()
9. 나는 내 친구 집단에 속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10. 밤에 시내나 유원지 등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논다.()
11.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자주 꿈에 나타난다.()
12. 부모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취급하신다.()
13. 우리 가족은 서로 싸움을 많이 한다.()
14. 걸핏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신경질을 잘 내신다.()
15.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다.()
16. 나는 가족들에게서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17. 잊을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
18. 남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체하고 지나간다.()
19.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잘 모른다.()

20.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있다.()
21. 호신용으로 어떤 기구나 칼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22. 나의 가까운 친구는 상습적으로 약을 사용한다.()
23.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
24. 사람이 많이 모인 변화가에 있으면 신이 난다.()
25. 부모와 가족이 지나치게 나의 허물을 찾아낸다.()
26. 술을 마시거나 취해 본 적이 가끔 있다.()
27. 나는 모든 것에 불만을 느낀다.()
28. 난 집에서 걸핏하면 두들겨 맞았다.()
29. 이상한 냄새를 맡고 환각을 일으킨 일이 있다.()
30.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다.()
31. 화가 나거나 피로울 때는 술이나 담배 생각이 난다.()
32. 잠시라도 조용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다.()
33. 나는 집에서 이유없이 벌받은 때가 자주 있었다.()
34. 기분이 나쁠 때 약으로 기분을 푼 적이 있다.()
35. 나의 친구들은 모험스러운 일을 즐긴다.()
36.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어떤 사람이 무섭다.()
37. 스릴을 즐기려고 위험한 일을 한 적이 있다.()
38.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39. 친구가 환각 주사를 맞는 데 따라간 적이 있다.()
40. 거의 매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

41. 부모님이나 형님(또는 오빠)에게 흔히 두들겨 맞곤 했다.()
42.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도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43. 재수나 낙제, 퇴학을 당한 적이 있다.()
44.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다.()
45. 떠들며 즐길 수 있는 행사나 파티에 가기를 좋아한다.()
46. 학교에서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다.()
47.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릴 때가 많다.()
48. 오랫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하다.()
49. 부모님은 내 생각이나 행동을 철저히 감독하려고 한다.()
50. 가족보다는 오히려 친구가 낫다.()
51.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52. 나는 보통 술을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취하도록 마신다.()
53.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놓아서 지쳐버리는 수가 있다.()

54.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은 잘 모르고 있다.()
55. 나의 가족 중에는 원수같은 사람이 있다.()
56. 언제나 어떤 장소에 가면 나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5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가 쉽다.()
58.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 보는 것 같아 성가시다.()
59. 경기나 게임은 내기를 해야 더 재미 있다.()
60.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벌을 받을 때가 많다.()
6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한다.()
62. 나를 정말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63. 잠시라도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할 때가 많다.()
64. 어린 나이에 성 문제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65. 나의 속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66. 틀림 없이 남들이 나에게 관한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67. 내 문제를 우리 부모님에게 터놓고 말하지 않는다.()
68. 누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69. 불합리한 일까지도 부모님은 기어코 나를 복종시켰다.()
70.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71.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 할 수가 없다.()
72. 현재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성문제이다.()
73. 지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용히 지낸다.()
74. 나의 친구들과 같이 특별한 옷차림을 하려고 한다.()
75. 가족 중 누가 나에게 한 일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
76. 목에 무엇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때가 많다.()
77. 사람들은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돕는 척 한다.()
78. 부모님은 내가 사귀는 친구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79. 가족들은 나를 장래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80. 잠을 잘 때 자주 깨고 다시 이루기가 어렵다.()
81.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82. 방과 후 친구들과 대부분 노는 편이다.()
83.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몰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84.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해치는 것에 무관심한 것 같다.()
85. 항상 입안이 마른 느낌이 든다.()
86.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 및 결석을 한 적이 있다.()
87.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아 보여 훔친 적이 있다.()

88. 집에서 나는 꾸지람을 자주 듣는다.()
89. 가족 중에 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90. 메스껍거나 토해서 곤잘 고생한다.()
91. 대체로 나는 학교에서 낙오자라고 생각한다.()
92. 부모님들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93. 어른들은 대부분 우리를 억눌러 지배하려고 한다.()
94. 부모님 허락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다 쓴 적이 있다.()
95. 현기증이 나는 일이 가끔 있다.()
96. 나는 가끔 담배를 피운다.()
97. 경찰관이나 학생지도 선생님들은 믿을 수가 없다.()
98. 부모님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99. 나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100. 대부분의 경찰은 좀 멍청해 보인다.()
101. 타인의 물건이나 돈을 허락 없이 가져 본 적이 있다.()
102.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일이 많다.()
103. 상/하급생을 두들겨 패 주거나 꿀탕을 먹인 적이 있다.()
104.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105. 가슴이 뛰거나 숨이 가빠지는 일이 있다.()
106. 할 수만 있다면 곧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
107. 낯선 남자나 여자를 놀리거나 꿀탕을 먹인 적이 있다.()
108. 물건을 슬쩍하지 않고는 못 견딜 때가 가끔 있다.()
109. 나는 저주 받은 운명의 인간이다.()
110. 부모님은 어떤 사소한 일에도 철저히 간섭하려 했다.()
111. 나는 언젠가 자살하고 말 것이다.()
112.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싸움 시비를 건 적이 있다.()
113. 법률이란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낫겠다.()
114.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남의 주목을 끌고 싶다.()
115. 나는 머리가 자주 아프다.()
116. 어떤 학생을 붙잡고 돈이나 물건을 강요한 적이 있다.()
117.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나를 더 싫어 했다.()
118. 내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119. 납부금 통지서의 내용을 바꾸어 기록한 적이 있다.()
120. 무엇을 읽어도 전과 같이 이해 할 수가 없다.()
121. 의식은 있어도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122.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두는 편이다.()
123.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24. 나는 호흡이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
125. 가끔 누군가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26. 근육이 마비되거나 나른해지는 일이 여러번 있었다.()
127. 돈을 걸고 화투, 트럼프 놀이 등을 자주 한다.()
128. 정말 화가 나면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해 버린다.()
129. 확실히 내 팔자는 나쁘다.()
130. 디스코홀과 같은 학생금지구역에 자주 간다.()
131. 나는 까닭 없이 짜증이나 심술이 난다.()
132. 약한 녀석을 위협하거나 겁을 준 적이 있다.()
133. 간혹 주먹다짐을 할 때가 있다.()
134.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135. 학교 밖에서 건방진 녀석을 보면 가만 두지 않는다.()
136. 요즈음 제정신을 잃을까 두려워진다.()
137.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138.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가 오히려 없었으면 할 때가 있다.()
139. 이성 친구때문에 싸운 적이 있다.()
140. 나는 무엇이고 때려 부수고 싶을 때가 있다.()
141. 요즘 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 같다.()
142. 까닭없이 갑자기 몸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143. 내 혼이 가끔 내 몸을 떠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144. 때때로 욕설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
145. 논쟁에서 쉽게 지고 만다.()
146.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147. 일이 잘 안될 때는 금방 집어 치운다.()
148. 내가 이미 결정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쉽게 잘 바꾼다.()
149.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남들이 대단찮게 여기면 그만둔다.()
150. 매사가 나에게겐 의미가 없다.()
151.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쩐지 서투르다.()
152.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기를 펴지 못한다.()
153.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느낌이 든다.()
154. 남이 잘못된 것도 내 탓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
155. 때때로 문제해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싸움이다.()
156. 나는 쓸모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 든다.()

157. 이성과 함께 외박을 한 적이 있다.()
158. 남의 행동에 관해서 시비를 따질 때가 많다.()
159. 평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공상하는 경우가 많다.()
160. 나는 싸움에 많이 말려 든다.()
161. 이성 친구들과 어울려 여럿이서 캠핑을 간 적이 있다.()
162. 어릴 때부터 나의 어떤 일도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다.()
163.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하고 말것이다.()
164. 나의 모든 일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165. 가끔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66. 누가 한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장면은 기분이 좋다.()
167. 누구라도 나에게 감히 달라들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168.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다.()
169. 이상한 꿈을 자주 꾸다.()
170. 많은 이성 친구들을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진다.()
171. 나는 어떤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재미있다.()
172. 부모님은 내가 속상해 있어도 본체만체 할 때가 많다.()
173. 쉽게 남들이 나를 무서워하게 할 수도 있다.()
174.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
175. 친구들과 함께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다.()
176. 가끔 자신이나 남을 해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177. 내 마음에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178. 남을 놀래 주거나 해롭게 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179. 나에게는 인생이란 늘 과중한 부담이다.()
180. 거친 행동을 해서 상대방의 기를 꺾으려고 한 적이 있다.()
181. 상담 선생님과 상담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182. 법에 걸려 본 일이 있다.()
183. 이성 친구와 지내다가 늦게 집에 돌아온 일이 가끔 있다.()
184.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185. 나는 올바른 생활을 해 오지 못했다.()
186. 나는 비밀이 많은 편이다.()
187. 파출소나 경찰서에 불려가 심문을 당한 적이 있다.()
188. 어떤 사람이 미워서 어떻게 보복할까 생각하고 있다.()
189. 부모님은 내 생각 행동까지도 철저히 지배하려고 했다.()
190. 자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때가 있다.()

191. 학교에서 근신이나 정학을 당한 적이 있다.()
192. 내 마음은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193. 실컷 울어보았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194. 나는 나 자신을 해롭게 하고픈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195. 선생님이 나의 일을 알까 두렵다.()
196. 나의 성적인 행동으로 말썽이 일어난 일이 있다.()
197. 나는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98. 나는 언제든 죽었으면 한다.()
199. 가족 중 아무도 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200. 교외생활지도 선생님에게 지적 당한 적이 있다.()
201. 행동을 한 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때가 있다.()
202.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 한다.()
203. 어머니는 나의 어떤 일에도 항상 극성스럽게 참견했다.()
204.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더러 있다.()
205. 가출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
206. 신경안정제를 먹어 본 적이 있다.()
207. 화 나는 일들이 나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208. 누가 내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것 같다.()
209.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갈 것만 같다.()
210. 우리 몇몇 친구들과간의 결속은 매우 강하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